

“절망 속에서 희망 심어 주고 싶어요”

김남길, 영화 ‘판도라’ 감정연기 폭발

“정서적 여운 많이 남는 배우 되고파”

“영화를 찍긴 찍었는데 개봉을 오랫동안 안 하니 처음에는 조바심이 많이 났죠. 하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남길(35)은 ‘판도라’ 속 발전소 직원 재혁의 이미지와 다르면서도 비슷했다.

최근 ‘개인적인 힘든 일’로 몸무게가 7~8kg가량이 빠져 한층 날카로우려 보였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월조 차도남’(차기운 도시의 남자)보다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재혁 쪽에 가까웠다.

“실제로 재혁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투덜거리는 것도 좋아하고, 앞에서는 무조건 ‘싫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부탁을 들어주는 청개구리 같은 성격도 있죠. 제가 장남인데 주변에서는 저더러 ‘너 막내지?’라고 항상 물을 정도거든요.”

‘판도라’에서 김남길은 평범한 원자력 발전소 직원이지만 아버지와 형을 발전소에서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마을을 떠날 생각만 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막상 재난이 발생하자 ‘소영웅’으로 거듭난다.

“영화를 찍으면서 가족에, 동료에 등을 포괄하는 인간애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재혁은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변 상황에 의해 영웅이 된 인물이지요.”

김남길은 초반에는 여러속한 청년으로 나오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적인 감정연기를 선보인다. 그는 이 장면을 찍고 나서 실신했을 정도로 공을 쏟았다고 한다.

김남길은 나라가 어수선한 현 시국에 영화가 개봉하게 된 데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금 시국에 맞물려 개봉하는 게 영화에 호재일지 약재일지는 판단이 안 서요. 대중들이 영화를 보다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 시국과 맞물려 개인적인 흥분을 하거나 몰타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배우는 무조건 작품과 연기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은 그러면서 “‘판도라’가 현실과 닮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도 희망을 이야기한다”며 “관객들도 희망 쪽에 초점을 맞춰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남길은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비담 역을 맡아 주목을 받았고, 드라마 ‘나쁜 남자’(2010), ‘상



김남길

어’(2013)에서 도회적이면서 나쁜 남자의 매력을 뽐냈다. 이어 영화 ‘해적 : 바다로 간 산적’(2014), ‘도리화가’, ‘무뢰한’(2015) 등에서 폭넓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어렸을 때는 제가 가진 도시적이거나 나쁜 남자, 그리고 슬픈 사연을 가진 듯한 이미지를 부각했죠. 당시 홍콩 배우 랑차오웨이(양조위)와 장편을 몰 모델로 삼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모습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난 뒤 정서적으로 여운이 많이 남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김남길은 “앞으로 3~5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 제가 어떤 배우일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남길은 단편영화 지원사업도 준비 중이다.

그는 “요즘 한국영화계는 멀티캐스팅이 대세가 되면서 대작영화만 만들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배우 입장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작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져야 바람직하다고 본

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남길은 ‘판도라’ 뿐만 아니라 ‘살 인자의 기억법’, ‘어느 날’ 등 영화 3편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반면 TV 드라마 활동은 상대적으로 뜸하다. “날고 기는 후배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아재’ 쪽으로 기울다 보니 드라마는 제가 별로 없네요. 하하”

활동은 상대적으로 뜸하다.

“날고 기는 후배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아재’ 쪽으로 기울다 보니 드라마는 제가 별로 없네요. 하하”

연습



왼쪽부터 이수근·김희철·윤종신·이국주·손박

몰래카메라가 돌아왔다

MBC ‘일밤-은밀하게 위대하게’ 4일 첫 방영

관찰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출연자를 속이는 MBC TV의 몰래카메라가 9년 만에 다시 일요일 저녁 안방극장으로 돌아온다.

MBC 예능본부는 오는 4일부터 ‘진짜 사나이’ 후속으로, 몰래카메라를 새롭게 재해석한 관찰 예능 ‘일밤-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선보인다.

‘몰래카메라’는 1991~92년 일요일 저녁 예능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15~20분짜리 코너로 이경규가 진행했다. 당시 내로라하는 연예인들이 대부분 출연하고 시청률이 70%를 웃돌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05~2007년에는 시즌2 격인 ‘돌아온 몰래카메라’가 1시간 분량으로 편성됐다. 이때도 시청률은 20~30%에 달했다.

따라서 이번엔 다시 복귀하는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몰래카메라 시즌3라고도 할 수 있다.

연출을 맡은 안수영 PD는 지난 30일 열린 ‘은밀하게 위대하게’ 제작발표회에서 “이전보다 좀 더 가볍고 좀 더 리얼하다”고 소개했다.

안 PD는 “몰래카메라는 내용에 따라 불쾌해질 수도, 진지해질 수도 있지만 유쾌하지만 한없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몰래카메라가 한 명의 진행자를 중심으로 판을 짜서 유쾌하지만 긴장감 속에서 진행했다면,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함께 준비하고 만들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MC들의 이야기와 의뢰인-주인공의 관계까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몰래카메라 원조 진행자인 이경규의 불참에 대해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몰래카메라가 속성된 술이랑이보다는 저희가 명주로 빚고 싶은 새 술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윤종신, 이수근이 주로 진행을 맡고 김희철, 이국주, 손박이 고정 MC로 참여한다. 이들 5명의 MC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현장에서 몰래카메라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출장 몰카단으로 활약한다.

윤종신은 “개인적으로 일요일 밤 예능은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면서 “이경규 선배가 일가를 이룬 포맷이어서 더 이상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속인다는 건 기존 몰카와 같지만 방법과 패턴이 매번 달라지고 느낌도 예전과 달리 인간적이고 속이는 것 외에 배려이더티 요소도 가미됐다”고 설명했다.

이수근은 “당하시는 분도 속이는 저희도 즐겁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부담 없는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연예인들이 꼭 출연하고 싶다고 할 수 있게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4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6시45분 방송된다.

연습

TV 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언제나 봄날>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홍영 나철, 백년의 유산 스페셜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우리말 겨루기 50 야생일기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김비> (재)	00 불어라 미룡아 (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위대한 유산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5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재)	00 SBS 12 뉴스 5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토크콘서트 화동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넷트워킹 특선다큐 <저돌문화, 스토리텔링으로 부활하다> 55 별별가족 (재)		30 앙코르 MBC스페셜	55 닥터 365
2	00 TV소 초품명품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5 텔레몬스터 (재) 30 헬로킴지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세상발견 유레카 (재) 55 닥터 365
3	00 특집생방송 국민비타민 김결 한마당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아해! 동물탐대 2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3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30 특집 SBS 뉴스 이수진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플러스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 패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창사 55주년 특집 MBC와 좋은 친구들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 24 55 비타민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김비>	0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00 드라마 스페셜 <푸른 바다의 전설>
11	00 KBS 뉴스리인 40 특집다큐 <제2의 인생, 배우에는 때가 없다>	10 해피 투게더	10 희망탈레타 토크콘서트 청춘진담	10 자기가 - 백년손님
12	30 2016 춘천 가족음악축제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빛날 스페셜 30 MBC 뉴스 24 55 유년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리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즐거운 인생, 씨시봉 <마이펫 스쿨 고양이를 부탁해>	15:05 두키탐험대	20:40 다큐오늘
05:30 통일 미리보기(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자 프리타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20:50 세계테마기행 <시베리아 황단열차 - 아직 있다, 시베리아의 꽃>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35 오솔상자	21:30 한국기행 <제주도-만주 제주 비색>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5:45 코코코다코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신종과외래 - 건강통, 나이를 잊다>
07:0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재)	12:10 장수의 비밀	16:15 두디다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40 역사채널e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07:45 꼬마버스 타요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6:45 똥똥똥 유치원1~3(재)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08:00 똥똥똥 유치원 1~3	13:40 스쿨랜드-한자왕국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가정 단순한 것이 정답이다?)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13:50 그림을 그려요	17:45 꼬마버스 타요(재)	24:10 스페이스 공감 1.2
09:00 주사위 오점 큐비주	13:55 출동! 슈퍼힘스 <스마트폰에 중독되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09:15 시계마을 타기톡!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스마트폰에 중독되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55 모피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09:40 부모 <위대한 연마>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일(음 11월 3일 丁巳)

子	48년생 왕성도를 염두에 뒤야겠다. 60년생 판세가 이처럼 흘러가게 된 것 역시 다 이유가 있느니라. 72년생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84년생 단차가 될 만한 소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행운의 숫자 : 71, 04	午	42년생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니 눈여겨보아라. 54년생 방비책을 튼튼히 해두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66년생 규칙적이고 계획적이야 오래 갈 수 있느니라. 78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86
丑	49년생 서두르던면 번틈을 보이고야 말 것이다. 61년생 약간만 신경 쓴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73년생 경제적으로 유익한 측면으로 도모해야 한다. 85년생 이번의 처지와 환경도 실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66, 59	未	43년생 내키지 않으면 굳이 행할 이유가 없다. 55년생 관리와 유지에 철저하지 않는다면 후회하게 되리라. 67년생 평온한 하루 속에 큰 깨달음이 있는 날이다. 79년생 주변의 상황에 휘둘러 들어가고 있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25, 63
寅	50년생 한눈에 썩 들지는 않겠지만 수용하는 것도 관건이다. 62년생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74년생 캐드나미한 후에 명확하게 처리해야한다. 86년생 소모적이지나 일회적이었던 과감하게 버려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3, 90	申	44년생 때를 만났으니 한껏 포부를 펼쳐도 된다. 56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담배지 않으면 상대로부터 밀리겠다. 68년생 반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80년생 제3의 요소가 생기면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92
卯	51년생 결모습만 보아도 대중 집적이 같 것이다. 63년생 무슨 일든지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되는 날이로다. 75년생 피담 흘러 노략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헛수고이다. 87년생 관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42, 02	酉	45년생 정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57년생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수확할 채비를 하라. 69년생 구태의연함에 벗어나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81년생 고정 관념을 버려야 새로운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0, 64
辰	40년생 흥겨워 할 것이다. 52년생 과감하게 미련을 버려라. 64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거대한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76년생 강력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88년생 양자의 사이에서 조정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5, 73	戌	46년생 숨은 뜻을 놓치지 말고 파악해야 하느니라. 58년생 현재 합들더라도 참여하면 발전한 판세를 도모할 수 있다. 70년생 우연히 맞닥뜨릴 수도 있느니라. 82년생 우연히 발생하는 행운이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0, 65
巳	41년생 무리하지 마라. 53년생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 65년생 은연중 자중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77년생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것을 맞이하게 된다. 89년생 새가 깃을 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23, 08	亥	47년생 존직은 고수하되 융통성을 발휘 하자. 59년생 부담스럽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71년생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한다면 후환을 면하게 될 것이다. 83년생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70, 4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